<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참고 기도문 >

사랑하는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는지에 대한 영계의 깊은 말씀을 전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개월이 넘도록 몸부림의 절식기도를 하시면서 조건을 쌓아서 귀한 말씀을 받아주신 선생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그만큼 마음을 다하고,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서 절실히 깨달아 삶 속에서 뜨거운 심정으로 시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은 날 새벽에 선생님께서는 냉수목욕을 하고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월명동과 각 부서에 편지로 전할 말을 생각하셨는데 아무 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셔서 성자 주님을 부르며 대화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때 성자 주님께서는 동녘의 태양처럼 선연히 "생각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주님, 무엇을 하시든지 먼저는 깊이 기도드리시어 성자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최첨단의 상차원에서 사시는 선생님의 삶을 말씀으로 깊이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며, 성자를 사랑하시어 먼저 깊이 기도드리고 물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차원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어 오직 성자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아 최고의 높은 차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이 역사를 뛰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이 있으면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삼위일체의 축복을 저희들도 온전히 받아 선생님의 위대하시며 온전하신 사랑의 삶처럼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자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그 생각의 축복으로 더 영적이고 신령한 성약의 위대한 역사를 오늘도 찬란하게 실천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이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귀한 시대의 역사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여 함께 하시는 시대의 보낸 자를 깨달아 가슴으로 깊이 모시게 해 주셨사오니 더 빛나는 지혜로, 각종의 모든 방법으로, 또한 힘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어 행하는 자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더 크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기가 어느 차원에서 사는지 각자 자기 모든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평균화되어 차원이 올라갈진대 저희가 하차원이 아닌 상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 신앙생활, 기도, 말씀, 영광, 감사, 화평, 전도, 관리, 강의, 성자 사랑, 부지런함, 열심, 성령의 은혜, 각종 가치성, 성자 모심과 섬김의 모든 삶을 다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상차원으로 살아서 성자 주님께서 상차원급의 생각의 축복을 주실 때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뇌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통하는 영적인 뇌, 전용선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전용선에 사탄이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며 우리 두뇌의 차원이 높고 영적이며 신령하여 생각이 깨어있어 삼위일체의 생각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 프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생각이 깨어 있어 기도의 프로가 되도록, 기도 생활을 평소 삶의 기본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사 변함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기도의 조건을 세워 주시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기억하시사, 오늘도 그 분 가운데 생각의 축복으로 성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정성어린 제단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받게 하시며, 모든 하시는 일 가운데도 최고의 차원높은 방법과 생각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어 영육강건 튼튼으로 힘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이 되어 사시는 두 증인과 사랑하는 섭리사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성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